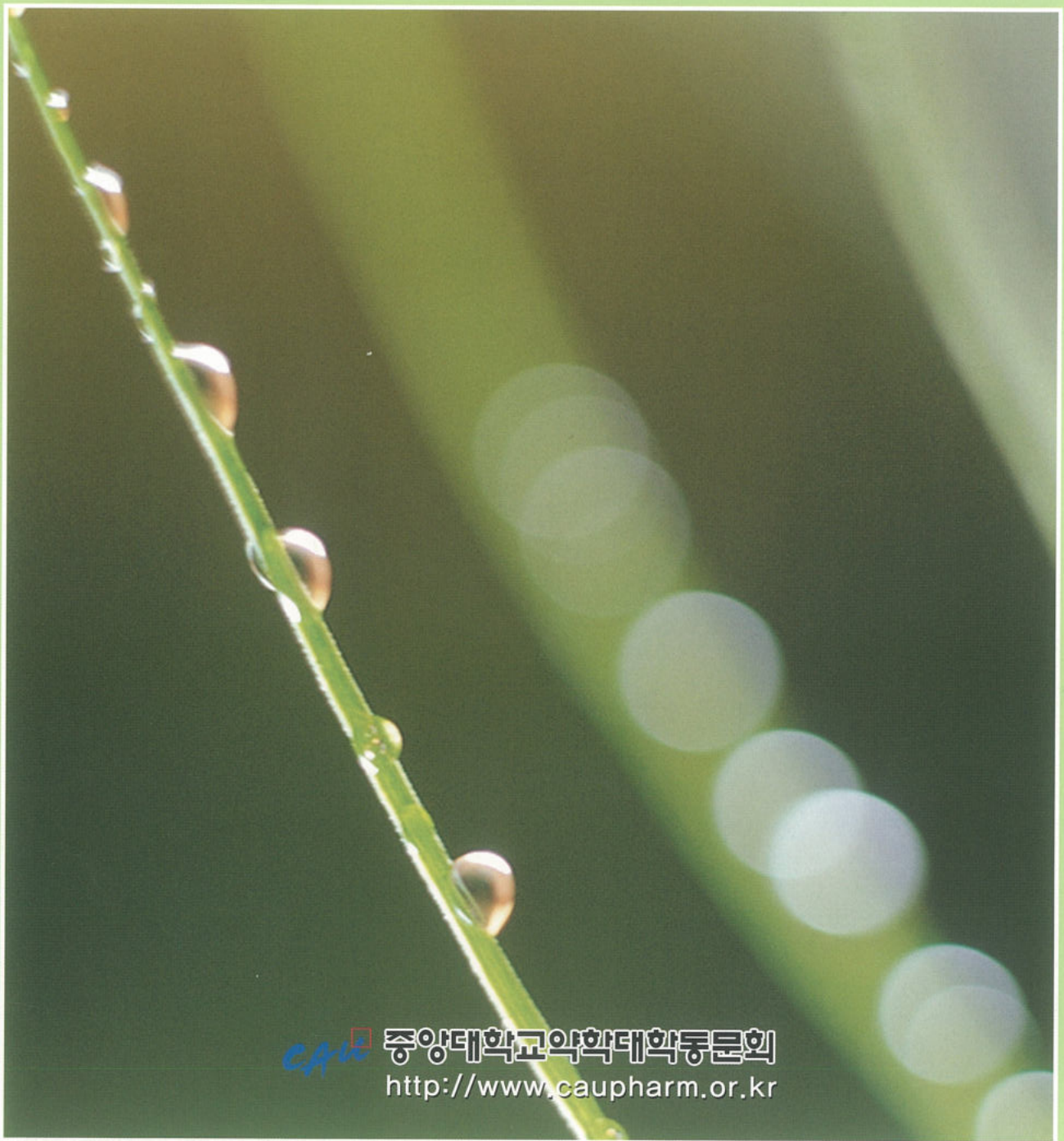


# 中央藥大 同門會報

봄

2006년 제20호



cau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http://www.caupharm.or.kr>



봄  
2006년 제20호

# CONTENTS

3. 시 론  
존경받는 약사회
4. 프로필  
동문회 전국 시·도 지부장
6. 동문회소식  
신년교례 및 제5차 회장단회의  
제6차 회장단회의  
여동문회회의  
장학기금위원회  
감사수감  
제7차 회장단회의  
최종이사회
8. 학교 소식  
2005년도 졸업식/2006년도 입학식
10. 동기회소식  
24회/중앙대 약대 입학 30주년!
12. 약국도움이야기  
모발약국  
약사의 경쟁력은 약사자신  
여름철 외상환자 복약지도
16. 인터뷰  
정년을 즈음하여
18. 행사  
약제반의달-30주년 기념
20. 회원동정
23. 만평
24. 동문기금  
발전기금 조성내역(기수별, 지부별)
26. 편집후기



# 존경받는 동문회

## 존경받는 약사회



조길도 (14회, 부회장)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선행위가 아니고, 흐트러진 자신을 가다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자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처방이 아니고, 자신을 향기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묘약입니다.

봄의 싱그러움을 만끽 하기도 전 어느새 찾아와 버린 여름. 살짝 풀어 헤친 셔츠처럼 굳게 닫힌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보려 하지만 각박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 묻혀버린 우리들 마음은 도무지 열리지를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용서(容恕)”라고 불리는 약이 불치의 병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주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좀 더 의미있게 보낼 수 있고 하루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치료약 하나를 찾아보자면, 그것은 바로 “용서(容恕)”라는 약일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선행위가 아니고, 흐트러진 자신을 가다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라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자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처방이 아니고, 자신을 향기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묘약(妙藥)입니다.

오늘날 우리 동문들이 “용서(容恕)”라는 약 하나만 개발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우울한 기사로 도배되지 않을 것이고, 나만을 위한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겠지요.

비록 그것이 지극히 느리고, 더딘 걸음일지라도, 우리는 “용서(容恕)”라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약을 개발하여 우울한 이 사회에 “행복(幸福)과 희망(希望)”이라는 웃음을 선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거리마다 벽면마다 온통 지자체 선거로 인한 각 정당의 예비후보들 선전물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선거공화국 이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자체의원..... 등등 수도 없이 많은 선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약사회 선거도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동문 중에도 약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이 선거후의 혼란스러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약사회를 위한 참다운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동문회장을 중심으로 중론(衆論)을 모을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당장 일꾼이 못되었다하더라도, 가슴 속 깊이 묻어놓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서로 “용서(容恕)와 화해(和解)”에 동참한다면, 내일의 우리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존경받는 약사회와, 발전하는 우리 약대동문을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모든 이들에게 “용서(容恕)와 화해(和解)”라는 무한대의 묘약(妙藥)으로 서로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미소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동문회 전국 시·도 지부장



임준석 (23회)  
종로구지부장



조근태 (23회)  
중구지부장



조중형 (18회)  
동대문구지부장



양희익 (17회)  
성동·광진구지부장



김영덕 (7회)  
성북구지부장



김정남 (10회)  
서대문구지부장



전광우 (18회)  
은평구지부장



이관하 (12회)  
마포구지부장



전철호 (17회)  
용산지부장



유정사 (10회)  
영등포구지부장



이호섭 (12회)  
구로·금천지부장



오상동 (20회)  
강서구지부장



하영길 (24회)  
양천시지부장



엄계숙 (13회)  
동작구지부장



윤대봉 (14회)  
강남구지부장



이현희 (22회)  
서초구지부장



정세희 (23회)  
송파구지부장



김종렬 (14회)  
관악구지부장



이우식 (13회)  
종랑구지부장



김용익 (15회)  
강동구지부장



“동문회 결속의 선봉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김 성 지 (17회)  
노원구지부장



김 현 태 (20회)  
수원시지부장



장 재 인 (17회)  
인천시지부장



황 태 선 (9회)  
평택시지부장



손 영 상 (26회)  
안양·군포·의왕시지부장



최 민 규 (26회)  
안산시지부장



이 창 훈 (24회)  
부천시지부장



김 상 각 (18회)  
파주시지부장



노 석 준 (12회)  
강원도지부장



임 유 재 (13회)  
대전시지부장



박 주 영 (16회)  
대구시지부장



김 정 길 (11회)  
부산시지부장



박 기 진 (14회)  
제주시지부장



김 철 수 (22회)  
성남시지부장



강 성 원 (9회)  
시흥시지부장



함 삼 균 (24회)  
고양시지부장



방 용 남 (23회)  
천안시지부장



곽 유 환 (8회)  
용인시지부장

이 정 구 (12회)  
도봉·강북지부장

김 승 렬 (18회)  
미주 지부장

임 상 규 (21회)  
광명시지부장





## 신년교례 및 제5차 회장단회의

△일시 : 2006년 1월 7일

△장소 : 동문회관 5시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기홍, 오세형 고문, 권태섭감사, 이근배, 박호일, 황공용, 김 구, 심재웅, 김종렬, 조길도, 임영식, 신상직, 강응모, 이경옥, 정찬헌, 유대식, 김영식, 김승재



## 제6차 회장단 회의

△일시 : 2006년 2월 18일

△안건 : 1. 동문회 현안 및 약사회 현안 건  
2. 기타토의 사항

△참석자 : 권혁구회장, 이근배, 박성학, 박호일, 유정사, 황공용, 김 구,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김종렬, 조길도, 임영식, 조찬휘, 허사길, 신상직, 강응모, 정명진, 이경옥, 이호선, 유대식, 김영식, 정덕기, 김승재, 최면용



## 여동문회의

△일시 : 2006년 2월15일 12시

△장소 : 동문회관

△참석자 : 권혁구회장, 이민원학장, 이경옥회장, 정덕화, 신정숙, 허근희, 강옥희, 강희윤, 양덕숙, 김희식



## 장학기금위원회

△일시 : 2006년 3월 7일 오후 5시

△장소 : 동문회관

△참석자 : 권혁구회장, 이민원 학장, 김기홍, 오세형, 최종묵, 김채윤, 임완호, 유영후 고문, 김영일, 윤주섭 감사, 이경옥 여동문회장, 김영식 사무총장





## 감사수감

△일시 : 2006년 4월 17일  
 △장소 : 동문회관 5시  
 △안건 : 2005년도 회무 및 회계보고 감사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영일, 권태섭 감사,  
 김종렬 사무총장



## 제7차 회장단 회의

△일시 : 2006년 4월 20일  
 △장소 : 동문회관  
 △안건 : 1. 최종이사회 및 정기총회 준비의 건  
 2. 약사회 현안 건  
 3. 기타토의 사항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이근배, 박성학,  
 유정사, 김 구, 심재웅, 문재빈,  
 박동규, 서국진, 김종렬, 임영식,  
 조찬휘, 강응모, 정명진, 김현태,  
 박기배, 정찬현, 이세진, 유대식,  
 김영식, 정덕기, 이규삼, 진희역,  
 최면용



## 최종이사회

△일시 : 2006년 4월 26일  
 △장소 : 프라자호텔(덕수홀)  
 △안건 : 1. 경과보고  
 2.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 건  
 3. 200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4.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건  
 5. 기타토의 사항





## 2005년도 졸업식

2005년도 약학대학 학위수여식이 2월 16일 오전 11시에 국제회의실 5층에서 열렸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약학전공 55명 제약학전공 61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권혁구 회장, 이민원 학장을 비롯 명예교수, 재임교수들이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했다.

권혁구 회장은 인사말에서 "신입동문이 된 것을 환영하며 망망대해와 같은 사회에서 동문회는 소중한 울타리와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격려했다.

한편 이민원 학장은 졸업생들에게 일일이 학위증을 나눠주며 아쉬움과 기쁨을 나누었다.

올해 대학수석은 오일영(제약학전공), 전공수석은 이해경(약학전공), 박영미(제약학전공), 우수상은 박인영(약학전공), 오주영(제약학전공), 공로상에는 남윤성(제약학전공), 허용성(약학전공), 오주영(제약학전공)이 차지했다.



## 50회 졸업자 명단

강지연, 고효상, 권지은, 김미진, 김보람, 김상우, 김상철, 김용현, 김유리, 김유진  
 김정민, 김정아, 김지연, 김지혜, 김진우, 김진희, 김태원, 노은석, 문지희, 박성훈  
 박인영, 박정진, 박주현, 박지현, 박찬일, 방수인, 성수연, 오민석, 오세호, 우종식  
 유연휘, 유패개, 유혜연, 이우철, 이지윤, 이해경, 임동준, 임병하, 임순하, 장하나  
 전상희, 전영훈, 정민주, 정원희, 정혜진, 조연교, 조정아, 최영화, 최윤정, 최종민  
 최한이, 최홍준, 허용성, 허정선, 홍중기 (약학전공 55명)

김도환, 김도훈, 김선희, 김유정, 김은하, 김주철, 김지수, 김진호, 김현미, 남윤성  
 남주연, 박관희, 박성만, 박신영, 박영미, 박혜정, 배건호, 성인하, 신갑수, 신설희  
 신예나래, 신정연, 신채옥, 신하영, 심은영, 안영환, 여현석, 염규정, 오동훈  
 오성태, 오일영, 오주영, 우민나, 유지혜, 윤영주, 은영선, 이나리, 이동희, 이명재  
 이상원, 이성빈, 이소영, 이송하, 이아름, 이영석, 이에리나, 이은방, 이정민, 임지연  
 임대중, 임현균, 장지성, 정수환, 정유진, 정홍근, 채보람, 채아름, 채혜나, 하민희  
 한장범, 홍승희(제약학전공 61명)

## 교외수상자

본동문회 : 신갑수  
 여동문회 : 정혜진  
 안산동문회 : 조연교  
 대한약사회 : 오일영  
 서울시약사회 : 강지연  
 동작구약사회 : 이소영  
 하나제약(주) : 장하나  
 일동제약(주) : 전영훈  
 삼진제약(주) : 성수연  
 한미약품(주) : 이명재  
 (주)온누리약국체인 : 고효상  
 건일제약(주) : 김보람  
 삼일제약(주) : 남주연

# 2006년도 입학식

- 일 시 : 2006년 2월 28일(화) 오후 2시
- 장 소 : 중앙문화예술관 멀티미디어실 (9층)
- 신입생선서대표 : 이원호
- 수석입학자 : 서정홍

이날 이민원 학장을 비롯 재임교수와 권혁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입학식  
 을 치루었다







김 승 재 (24회, 부회장)

동문회 사무실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기전까지는 세월의 빠름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1학년에 입학하여 누나가 사준 회색의 골덴 나팔바지와 청색 골덴 자켓에 장발 머리를 하고 마음껏 멋부리던 그때가 엇그제 같은데, 또 친구들과 어울려 루이스 가든에서 소주와 막걸리에 새우깡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무슨 세월이 무슨 빠른 일이 있다고 이렇게 후딱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지 감회가 새롭다.

그 당시 76학번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는 대부분 30대 후반에서 40대 였는데 거의 막내 역할을 하셨던 임철부 교수님께서 올해 2월달에 정년퇴임하셨으니 세월의 빠름에 다시한번 놀랄 따름이다.

그래도 70년대 후반은 시국이 어수선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은 참 재미 있었던 것 같았다.

그 당시는 실험반 활동이 한창 왕성할 때여서 그런지 어떤 실험반에 누가 들어갔는지, 몇 안되

는 여학생들이 어느 실험반에 가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선배님들 또한 괜찮은 후배를 자기 실험반에 넣기위해 007작전도 불사할 정도였다.

반면 실험반에 소속되지 못한 친구들은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았다.

또 타 대학 약대와 연합써클 활동도 대단히 활발했었는데 “약수, 약창, 약협” 등의 써클이 주를 이루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써클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선후배들의 모임이 잦은걸 보면 그 당시 써클활동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 였는지 알 수가 있다

동기들에 대한 근황을 알아보면 약대 공부도 힘들었는데 ROTC까지 하느라고 고생 많았던 11명의 장교 후보생들! 한명도 빠짐없이 임관하고 또 아무탈 없이 전역하여 지역에서 큰 일을 하고 있는 조중래(부산 상조회회장), 이규삼(서울 서초구 회장), 이범도(경기 안산시 회장), 학교에는 학장을 역임한 최영욱 박

## 중앙대 약대 입학 30주년!

장발 머리를 하고 마음껏 멋부리던 그때가 엇그제 같은데,  
또 친구들과 어울려 루이스 가든에서 소주와 막걸리에 새우깡 먹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무슨 세월이 무슨 빠른 일이 있다고 이렇게 후딱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지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살아온 친구들이여! 이제는 늘어난 우리의 흰 머리칼을 보면서 뒤를 한번 돌아봅세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많은 추억들이 그곳에 있을걸세. 우리 조만간에 한번들 만나세.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즐거운 미래를 위해서...

사, KFDA에 있는 김동섭 박사 의약식품대학원 객원 교수인 양성삼 박사, 김승재 박사 약업계에는 갈원일(한국제약협회 전무), 정종근(대웅제약 상무), 조진성(종근당 공장장), 홍용기(일진제약 상무), 박관수(쉐링프라우 이사), 이희상(부광약품 상무), 양성철(닥터팜 이사), 정상수(파마리서치 대표이사), 심승주(개인사업), 윤규형(계놈&메디신 사장)등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며, 김봉문 동문은 한의학공부를 다시하여 현재 효성한의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임무호 동문은 사회복지법인 신라복지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임근배 동문은 김해금강병원 약국장으로, 이광섭 동문도 얼마전까지 적십자병원 약제부장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동문 대부분은 약국에서

열심히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느라고 정신 없이 살고 있다.

5년전 졸업 20주년 행사를 치루었을때는 친구들이 그런대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들 변해 있을지?

벌써 입학한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듯이 우리 모두 5학년에 진입하니 젊었을때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건강들을 잘 챙기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

그동안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살아온 친구들이여! 이제는 늘어난 우리의 흰 머리카락을 보면서 뒤를 한번 돌아봅세나!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곳에 있을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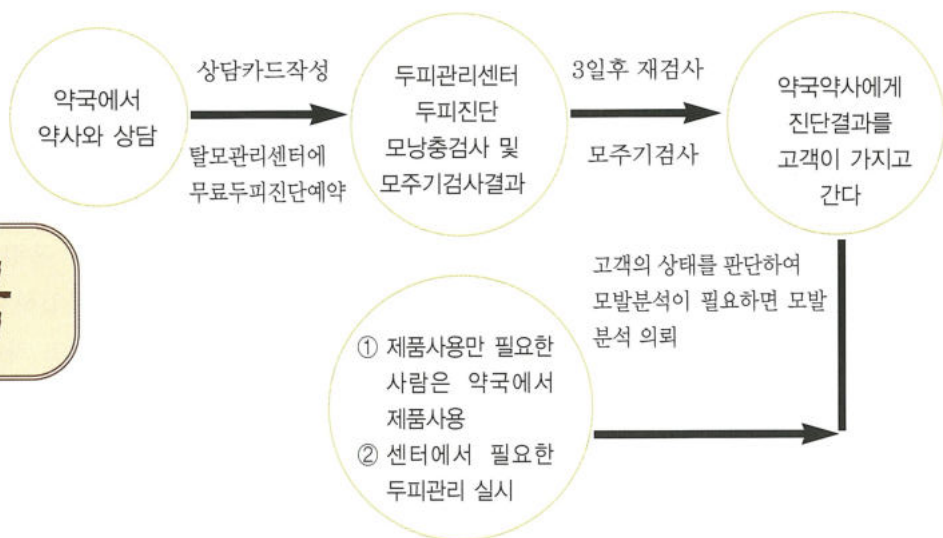
우리 조만간에 한번들 만나세.

우리들의 아름다운 추억과 즐거운 미래를 위해서...



벌써 입학한지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듯이  
우리 모두  
5학년에  
진입하니  
젊었을때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건  
강들을  
잘 챙기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





## 모발약국



허근희 (8회, 이사)

### Dr.Q NDM

- 남성형탈모
- 여성형탈모
- 원형탈모
- 임신, 산후탈모
- 비듬/지루성트러블



내가 모발약국을 개설하게 된 동기는 미용실에서 소극적으로 두피관리를 실시하다보니 제품과 케어로는 치유가 되지 못하는 내부적인 요인이나 정신적인 요인에 의한 탈모까지도 효과를 볼수 있도록 약사의 직능을 활용하고 싶은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의약분업이 실시된 2000년 8월 1일에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개업을 하게 되었다.

모발에 관한 특화약국으로는 처음이라 그런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알려졌다. 고객들의 문의전화도 많았고 직접 방문하는 숫자가 점차적으로 늘어갔다. 탈모환자들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인지 쉽게 제품사용을 못하였는데, 두피진단과 모낭총 검사를 통한 확실한 상태를 보고는 제품사용과 두피관리를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효과가 생각보다 컸으며 효과를 보게 되는 즉시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일본 모발과학협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부터 탈모고객이 눈에 보였는데 약사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면 가까이에서 탈모로 고생하는 인구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2003년 5월부터 교육을 실시했는데 큰성과는 없었다. 그래서 다른분야인 미용실, 피부관리실, 탈모관리센터와 함께 교육을 시켰다. 2005년 3월에 춘강약학연구소에서 약사들만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이후 여러차례 교육을 통해 동참한 약국이 50여개가 된다.

여러 교육이 있지만 탈모전문교육은 약사들이 평소 임상이 많으므로 이해가 쉽고 탈모고객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탈모교육을 받게 되면 탈모 고객이 보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 상담을 하게 된다. (문의처 : 허근희 011-748-3047)





양 덕 숙 (28회, 부회장)

## 약사의 경쟁력은 약사자신

소비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온몸으로 응대하는 직업을 가진 약사들은 스스로의 몸전체에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외모와 덩치가 급여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버나드쇼우는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자신에게 맞추고 영리한 사람은 세상에 자신을 맞추어서 처신한다고 했다.

요즈음 건강의 페러다임은 비주얼시대이면서 웰빙시대이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약국에서는 해피드럭이나 웰빙건강식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다. 몸짱제품부터 주름개선, 미백효과, 회춘제품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런 제품들을 설명하는 약사본인의 몸 그자체도 당연히 환자들의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약사가 건강해야 이러한 제품소개를 지식적인 면과 더불어 자신의 건강비결도 같이 해주므로 진실로 살아있는 상담이 될것이다.

나 역시 약국경영과 공부등의 핑계로 몸을 돌보지 않고 앞으로만 달리다보니 어느새 어언 50세의 문턱에 오고 말았다. 그동안 수많은 화학약품에 의존하면서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 50~60대 중년들을 보아 오면서 나는 저렇게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골다공증등...

그래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그동안 50년 동안 사용만한 나의 몸을 앞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아끼겠다.

두 번째는 식단을 확 바꾸어서 입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겠다.

그다음에는 매일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해야겠다. 마지막으로 한약이나 건강식품으로 부족한 부분을 다져 나가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심을 실천한 결과 지금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쟁력있는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성경에 바라는것의 실상이 믿음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진심으로 건강한 20대의 몸과 체질로 바꾸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을 마음속에서 발견한다면 꾸준한 실천을 덧붙여 보시라.

그러면 누구나 성공적인 경쟁력을 갖추 수 있다.

50대인 마돈나, 콘돌리자 라이스도 음식과 운동을 과학적으로 실천하기에 그 나이에 도 20대의 건강과 몸매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약사들은 영양적인 면이나 운동생리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혹 부족한 부분은 서점에서 일차적으로 운동에 관련된 책들을 구입하여 연구를 하여 자신에게 알맞은 운동기법을 개발하여 매일 실천하면 된다.

나 같은 경우는 유연성운동, 근력운동, 유산소운동을 적절히 안배하여 무리하지 않고 매일실천해 오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말한다. 지금 40대는 평균수명이 120세가 된다고

따라서 우리 약사들 역시 120세까지 생존할확률이 많으므로 직업과 건강에 대한 설계를 지금부터 잘해야한다. 우리약사들은 건강관리만 잘한다면 100세까지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 여름철 외상환자 복약지도

“상처에는 딱지가 있어야 치료가 빠르다”는 틀린 이야기다.

약사는 환자가 상처가 자연적으로 통증, 염증 및 흉터 없이 치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며 적당한 살균소독제, 항생제의 선택과 드레싱 하는 요령을 세심하게 지도하여야 한다.



**최 병 철** (21회, 동문)  
약학박사  
의약식품대학원 겸임교수  
약사교육연구소 소장

## 원인

1. 외상, 창상 : 날카로운 도구, 둔기, 총기, 차바퀴 등의 기계적인 원인
2. 화학열상 : 산, 염기, 독가스 등의 화학적인 원인
3. 화상, 동상:온열, 한랭의 열적인 원인
4. 전격상:전류
5. 일광 자외선
6. 방사선(방사선장해)

## 증상

출혈과 통증이지만 증상의 정도는 상처의 부위·종류·크기에 따라 다르다.

통증과 함께 진물이 나오는 시기인 염증기(3-4일)에는 진물이 죽은 피부세포나 이물질들을 배출시키고, 세균을 없애 상처를 깨끗이 하는 역할하며 상처부위에 혈소판이 응고되고 및 혈액 흐름이 중단되면서 지혈이 진행된다. 염증기 후반(증식기)에 재생 상피세포가 만들어져 상처면을 따라 피부를 덮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며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신피질이 만들어져 3두 정도 피부세포의 증식을 돕는다. 세포 결합이 단단해지고 불필요한 신피질이 없어지면서 정상 피부색을 되찾으며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

## 치료제 선택

살균소독제는 크게 액제와 크림제로 나눌수 있으며 먼저 액제로는 알코올, 과산화수소, 요오드, 포비돈제제가 있다. 알코올 소독제는 그램양성, 음성 및 결핵균에 사용하지만 바이러스나 진균에는 살균력

이 강하지 못하다. 알코올제제는 에칠 알콜과 이소프로필 알코올로 나눈다. 에칠 알코올은 20~70%에서 세균에 대한 살균력이 우수하다. 경상의 응급처치약으로 손 및 피부, 수술부위 피부의 소독과 의료용구의 소독에 사용하며 탁히 절상, 찰과상, 화상 및 2차 감염 등에 1일 1-3회 사용하지만 직접 환부에 사용하면 자극이 심하다.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에칠 알코올 보다 살균력이 강한 반면 지방 용해작용이 강해 탈수 수렴효과가 크다. 과산화수소는 혈액이나 조직액과 효소적으로 반응하여 산소를 배출할 수 있는 상처에만 사용한다. 그러므로 딱지가 있거나 농으로 덮혀 있는 환부에는 비효과적이고 소독효과는 거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요오드제제는 세균, 바이러스, 원충 및 효모균 등 매우 다양하게 살균력이 강하지만 피부 자극감이 강해 1차 소독약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포비돈 요오드제제는 9-12%에서 살균소독작용을 발휘하며 0.001%에서 질 세정제로 사용한다. 세균, 바이러스, 진균 및 결핵균 등 모든 감염에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피부나 점막을 자극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며 주로 찢긴 상처, 화상, 창상, 궤양, 농양 및 수술부위의 살균소독에 사용하며 주사 및 카테터부위의 소독에도 사용한다. 현대 누보클렌 액은 소독성분 글루콘산 클로르헥시딘, 혈관수축제 나파졸린, 국소마취제 디부카인, 항히스타민제 디펜히드라민, 수렴제 알란이 함유하고 있으며 찰과상, 절상, 창상, 수지의 살균소독, 치질인 경우의 항문 살균소독에 사용한다. 다음 크림제로는 텍스판테놀을 함유한 제제가 있으며 상처, 화상, 찢



긴 상처(수유기 중의 유두균열(갈라짐) 등), 욕창, 급·만성 피부염, 습진, 피부궤양, 기저귀발진, 햇볕에 탄 데(일광피부염)의 보조치료로 사용한다. 상처 부위에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소독제와 국소마취제가 함유한 가아제나 스프레이 타입을 선택한다. 외용 항생제는 바시트라신, 겐타마이신, 네오마이신, 뮤피로신 등 단일성분을 함유한 제제와 바시트라신, 네오마이신 및 폴리믹신을 함유한 복합제제가 있다. 바시트라신은 주로 그람 양성균(농가진, 모낭염, 종창, 농피증 등)에 효과적이다. 겐타마이신은 진균, 바이러스 등 2차 감염이나 중복감염에 효과적이다. 또한 네오마이신은 그람 음성균에 효과적이지만 다양한 균에 비효과적이므로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외용 항생제라도 상처가 넓고 깊은 경우에는 전신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뮤피로신은 광범위 항균제로 특히 외용으로 안전한 약품이다.

복합제제는 1차, 2차 감염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감염이 우려되고 통증이 있는 경우 국소마취제가 함유한 약을 선택한다. 상처회복제로 베타-시토스테롤은 화상 상처의 회복에, 아즐렌은 궤양 상처에 효과적이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습윤상처치료가 중요하다. 상처에 의해 생긴 건조한 피부세포는 죽은 세포이고 세포의 자연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먼저 상처가 생겨 피부가 파손되면 습한 피부조직에서 수분이 증발되어 피부 표면세포가 괴사를 일으켜 상처 부위에서 새어 나온 혈액과 림프액에 의해 흉터가 만들어 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처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되면서 주위의 정상 조직에 비해 상처부위의 국소적인 온도가 저하된다. 온도가 저하되면 혈관이 축소되고 헤모글로빈의 산소 결합력이 증가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정상 세포에는 바이오 전기가 흐르고 있다. 그러나 상처부위가 건조하면 전기의 흐름이 중단되어 상처 회복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네 번째 상처 초기에는 고온 다습한 피부환경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피부를 습윤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상처 피부에 드레싱을 하면 삼출액을 흡수하고 상처를 보호하고 유지하며 건조된 상처를 수화시키고 죽은 세포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복약지도

- 상처는 상처부위 세척, 살균소독제 처치, 항생제 처치 다음 드레싱 순서로 치료한다.
  - 준비과정 : 비누물로 손 세척 및 건조시킨다. 청결한 표면에 드레싱 포장 개봉한다.
  - 사용한 드레싱 제거 : 1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반창고를 가장자리부터 상처 쪽으로 잡아 당긴다. 드레싱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한 1회용 봉지에 버린다. 출혈, 발적, 냄새 등을 상처 치유 정도를 확인한다.
  - 세척 : 세척제로 상처 중앙부위에서 바깥 부위로 부드럽게 닦아낸다. 상처 표면을 두드리면서 주위를 가제 스폰지로 건조시킨다.
  - 소독제 항생제 처치 : 상처 부위의 주위 피부를 닦아내고 필요하면 항생제를 바른다.
  - 드레싱 : 지시사항에 따라 한다/비누물로 손을 세척한다.
-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고 특히 비타민 A, C, 등 아연을 함유한 영양제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여 상처부위에 탈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상처 부위가 더러워 세척하는 경우 소독약을 사용하지 말고 열은 비눗물 또는 생리식염수를 사용하도록 한다. 상처 부위에 있는 점액, 삼출물, 혈액 등은 소독약의 살균력을 저하시킨다.
- 살균소독제는 원칙적으로 노출된 상처부위에 사용하지 말고 상처주위의 정상부위의 멸균목적으로 사용한다.
- 상처부위가 완전히 건조되지 않도록 하고 상처 및 염증이 치유될 때 까지 드레싱을 하도록 한다.
- 현재 약물(코티코스테로이드제제, 면역억제제, 항혈액응고제, 아스피린, 진통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출혈이 심하고 상처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 자가 치료를 해서 5일이 경과후 상처가 치유되지 않거나 감염이 의심되면 국소 항생제를 바르지 말고 병원에 보내도록 한다. 발열이나 감기 유사 증상은 세균의 전신감염을 예상할 수 있다. 발적, 부종, 삼출물은 정상적이나 악취는 비정상적 이므로 경구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여야 한다.
- 상처가 근육, 신경 및 건을 손상한 경우 또는 출혈이 심한 경우 상처 부위를 심장보다 높도록 하면 출혈이 감소되고 통증이 감소시킨 후 병원으로 보내도록 한다.
- 노인환자 특히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병원에 보내도록 한다.
- 고농도 소독용 알코올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사용은 상처부위를 탈수를 일으켜 상처 치유가 지연되므로 너무 자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인화성 물질에 주의하도록 한다.
- 요오드제제는 사용후 피부 착색, 조직 자극 또는 알러지가 나타날 수 있다.
- 요오드제제는 상처가 넓고 깊은 부위에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에 이상을 나타날 수 있다.
- 과산화수소는 농이 있는 환부에는 비효과적이고 거품이 발생하면 소독효과가 발휘하고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 국소항생제는 오염된 상처부위에 4시간 이내 사용했을 때 감염을 방지할 수 있고 만약 감염이 된 경우에는 5일이 경과해도 차도가 없으면 병원에 가도록 한다.





임철부  
(6회, 명예교수)

## 정년을 즈음하여...

앞으로 남은 여생을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고자 하며 건강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능력이 미치는 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삶, 그리고 긍정적으로 즐겁게 사는 삶을 이어 가고자 합니다.

1966년 대학 조교로부터 시작하여 거의 40년간 봉직했던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맞으며, 지내온 세월의 삶의 자취를 돌이켜 볼 때 인생은 다분히 운명적인 부분이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대단히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 자신도 그러했으며, 지금와서 생각할 때 그러한 결정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1960년대 초반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은 대단히 열악하여 세계 최빈국의 수준이어서 연구 생활을 계속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러나 학문에 대한 열정만으로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였으며 부단히 노력한 결과 석사과정을 거쳐 박사 학위를 취득하기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기회가 주어져 결국은 모교인 중앙대학교에서 전임 교원으로 교육 및 연구생활을 계속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경제 여건이 매우 좋아져 연구 환경도 세계선진국 수준에 조금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크게 향상되었으나 60~70년대 만하더라도 모든 여건이

열악하여 연구 활동에 엄청난 어려움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70여편의 연구 논문, 50여명의 석·박사 배출, 10여종의 저술 활동 등 기대이상의 연구 업적을 얻을 수 있었음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유기약품화학연구실의 대학원생 및 학부생들이 밤샘하며 꾸준히 계속해온 실험들로써 이는 본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대학도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학원 소요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었고, 대학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수들은 모두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로서 엄청난 고뇌를 겪어야만 했으나 어찌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었던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정년의 시점에서 과거 30여년간의 대학 생활을 돌이켜 볼 때 몇가지의 일들이 생각됩니다.

70년대 초 전국의 유기계약 담당 교수들과 더불어 유기약품제조화학 교재를 처음으로 편찬했던 일입니다. 전국 약학대학에서 강의하는 유기약품제조화학의









이 창 훈 (26회, 회장)

# “약제반의날 30주년 기념...”



▲ 1981년 실험실 앞에서



▲ 1996년 약제반의 날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5월 셋째주 일요일 “약제반의 날” 행사를 잊으신 분은 알바회 회원뿐만 아니라 약제학교실과 인연을 맺은 분들이라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30년이 되도록 한결같이 행사를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회원 모두의 알바회에 대한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날은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점심도 먹으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나누는 정말 화기애애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학 중에는 실험실에서 선후배 또는 동기간으로서의 정이 졸업후에 바로 이런 자리를 통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25주년 행사는 알바회 60년대 학번 선배님들께서 주관해주셔서 훌륭히 지루었음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이번 30주년 행사는 71학번 부터 80학번까지 70년대 학번 선배님들께서 주관해 주셔서 행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수고하셨던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약제반의 날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져 40주년, 50주년, 60주년 행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전통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30년이 되도록 한결같이 행사를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회원 모두의 알바회에 대한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 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날은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점심도 먹으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하는 정말 화기애애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학 중에는 실험실에서 선후배, 동기간의 정이 졸업후에는 바로 이런 자리에서 정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계속 발간해오던 알바뉴스레이터를 이번에는 약제반의 날 30주년 기념 특집호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심오한 철학이나 진리가 담기지는 않았을지라도 또 아름답고 매끄러운 필체는 아닐지라도 우리 회원들이 참여하여 30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행사를 비롯하여 알바회에 대한 애정어린 글들로 묶어보았습니다. 선배님들은 추억을 음미 할 수 있고, 또 후배들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에피소드를 접함으로써 선후배가 더 가까워지고 정이 들 수 있게 될것이라 기대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중앙대학교 약제학교실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우뚝 서는 연구실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에서 우리 선후배님들께서 많이 활동하고 계신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바회 회원들의 약제학교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 물질적, 정신적지원에 정말 놀랐으며, 이러한 모습들이 이 바로 약제학교실이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저력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사와 약제반의 날 30주년 기념책자 발간을 위하여 특별히 찬조해주신 박기배 박사님, 박종화 사장님, 권석형 사장님, 윤규형 사장님, 박준상 후배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회원 및 회원가족여러분의 발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목원회



60~69학번



70~79학번



80~89학번



90~99학번



00~06학번



재학생





행사

▶ 1월 7일 신년교례회 및 제5차 회장단회의 (동문회관 5시)



▶ 1월 19일 노원지부 모임 10시 [김성지(17회) 지부장]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종렬 사무총장 참석



▶ 2월 15일 여동문회의 12시 (동문회관)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이민원 학장 참석



▶ 2월 16일 중앙대학교약학대학 학위수여식 11시 (모교 대학원강당)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이경옥 여동문회장, 김종렬 사무총장 참석



▶ 2월 17일 안양지부 모임 10시 [현기원(27회)지부회장]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이민원 학장, 김종렬 사무총장, 김영식 사무부총장 참석 [안양동문회 일반회비 600,000만원 신임지부장 손영상(26회)]



▶ 2월 18일 제 6 차 회장단회의

• 안 건 : 1. 동문회 현안 및 약사회 현안 건  
2. 기타토의 사항

회장단특별회비 : 황공용, 김 구, 박동규, 이경옥, 이호선, 김승재, 정덕기, 최면용



▶ 2월 24일 도봉·강북지부 모임 7시 [신상직(17회) 지부장]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종렬 사무총장 [도봉·강북 동문회 일반회비 1,000,000만원] 신임지부장 이정구(12회)



▶ 2월 28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2006학년도 입학식 11시 모교 아트센터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참석, 김종렬 사무총장



- ▶ 3월 1일 강남지부 척사대회 12시 [윤대봉(14회) 지부장]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종렬 사무총장
  - [강남동문회 일반회비 800,000만원]



- ▶ 3월 7일 장학기금위원회 5시 동문회관
- ▶ 3월 12일 9회 졸업 40주년 기념행사 (양자강) 장학기금 3,000,000원



- ▶ 3월 16일 편집위원회의 5시 (동문회관)
  - 참석자 : 황공용 편집위원장, 김종렬 사무총장, 김기명편집위원, 김정수 편집위원,
- ▶ 3월 23일 2006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 11시 (모교세미나실)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이경옥 여동문회장, 김종렬 사무총장
- ▶ 4월 11일 사무총장단회의 4시 (동문회관)
  - 안 건 : 최종이사회 및 정기총회 준비의 건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종렬 사무총장, 김영식 사무부총장
- ▶ 4월 13일 감사수감 5시 (동문회관)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종렬 사무총장, 김영일, 권태섭감사

- ▶ 4월 20일 제7차 회장단회의 6시 (동문회관)
    - 안 건 : 1. 최종이사회 및 정기총회 준비의 건
    - 2. 약사회 현안 건
    - 3. 기타토의 사항
- 회장단특별회비 : 박성학, 심재웅, 문재빈, 김영식



- ▶ 4월 22일 서초지부 모임 5시 [이현희(22회) 지부장]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참석



- ▶ 4월 25일 서초구 약사회 자선다과회 [이규삼(24회) 회장]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종렬 사무총장
- ▶ 4월 25일 성동구 약사회 자선다과회 [김영식(23회) 회장]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김종렬 사무총장 참석
- ▶ 4월 26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 최종이사회 프라자호텔 (덕수홀)
  - 안 건 : 1. 경과보고
  - 2.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 건
  - 3. 2006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건
  - 4. 2006년도 예산(안) 심의 건
  - 5. 기타토의 사항
- ▶ 5월 10일 송파구 약사회 자선다과회 [진희억(26회) 회장]
  - 참석자 : 권혁구 회장, 이경옥 여동문회장 참석



## 회원동정

### 결혼

- 2월 4일 김애경(18회) 이사 자녀결혼
- 4월 1일 최병호(12회) 이사 자녀결혼
- 4월 30일 김영기(6회) 동문 자녀결혼
- 5월 5일 방순환(10회) 동문 자녀결혼
- 5월 5일 이효훈(12회) 동문 자녀결혼
- 5월 20일 노덕재(12회) 이사 자녀결혼

### 개업

- 김종렬(14회) 사무총장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972-5번지  
[보라매성심약국] 02)888-3443
- 정명진(18회) 부회장  
서울시 서대문구 창천동 29-81번지 르메이에르 5타운  
[새명지약국] 02)393-3136

### 부음

- 12월 5일 이광섭(24회) 이사 모친상
- 12월 10일 우종오(29회) 동문 빙수상
- 1월 13일 이수자(9회) 동문 부근상
- 1월 17일 박성학(9회) 부회장 빙모상
- 1월 20일 김형근(22회) 부회장 자녀상
- 2월 2일 김승재(24회) 부회장 모친상
- 3월 6일 이재만(21회) 동문 별세
- 3월 16일 장재인(17회) 부회장 부친상

부음시 동문회로 연락주시면 근조기를 설치해드립니다.

## 동문회비 및 기금납부자

(2006년 5월 19일 ~ 5월 30일)

### 회장단 특별회비

- 5·6차 : 황공용(11회), 김구(12회), 박동규(13회), 이경옥(19회), 이호선(20회), 정덕기(23회), 김승재(24회), 최면용(27회)
- 7차 : 박성학(9회), 심재웅(12회), 문재민(13회), 김영식(23회)

### 이사회비

- 1회 : 김기홍, 2회 : 정덕화
- 3회 ; 노인배, 8회 : 임상목, 한석원
- 9회 : 권태섭
- 12회 : 이효훈

# 장학금 수여식

모교 교수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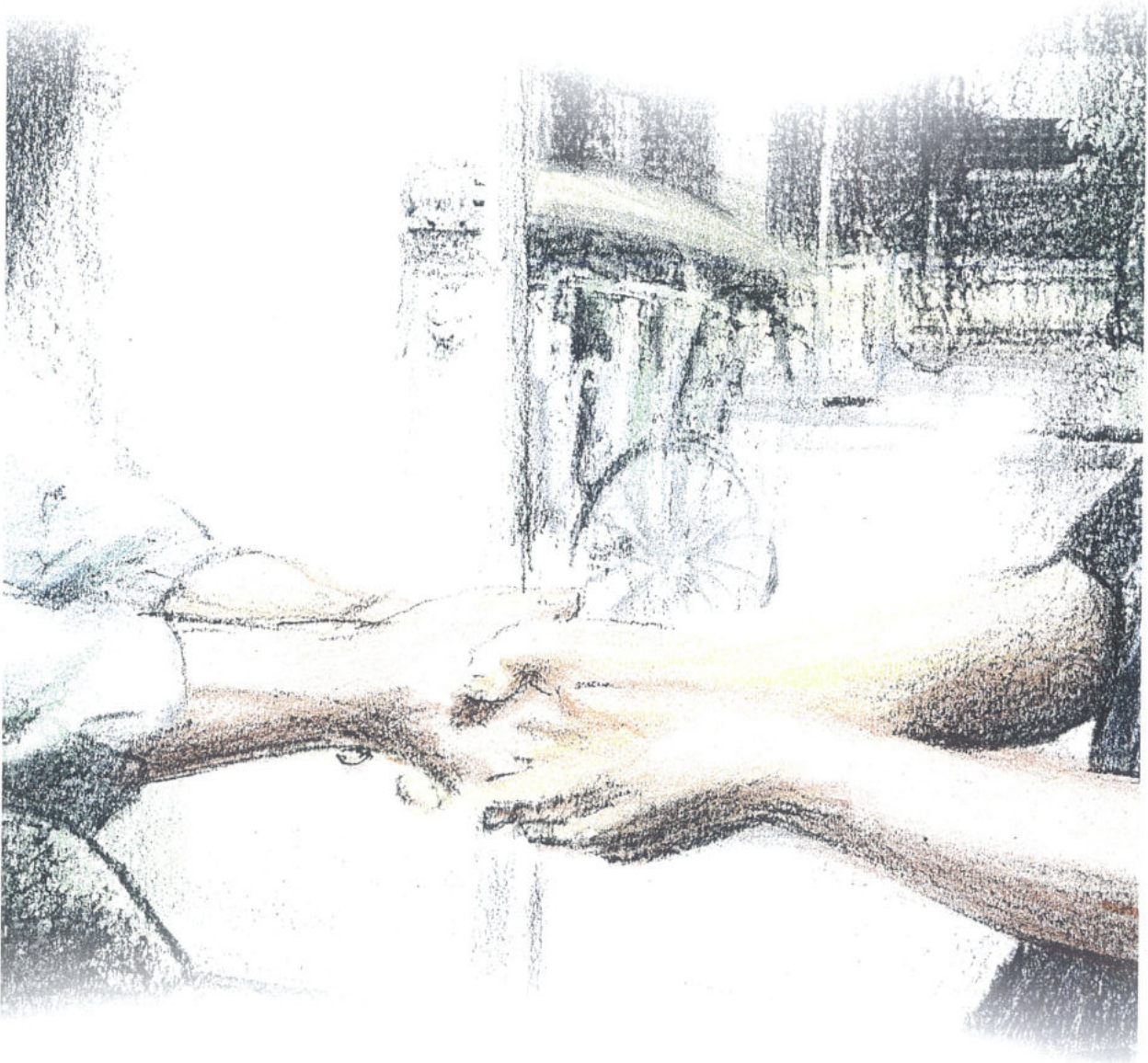


## 약학대학 동문회 장학금 수혜자

장학금명	장학금액	학년	수혜자명	평점
본 동 문 회 (7,000,000)	700,000	약학2	최 윤 경	3.85
	700,000	제약2	김 민 아	3.80
	700,000	약학3	손 정 은	4.07
	700,000	약학3	윤 수 연	4.12
	700,000	제약3	문 수 진	4.05
	700,000	제약3	조 규 석	4.02
	700,000	약학4	이 영 민	4.07
	700,000	약학4	이 종 훈	3.73
	700,000	제약4	이 상 현	3.90
	700,000	제약4	임 재 완	3.90
부 산 동 문 회 (500,000)	500,000	약학3	이 승 재	3.73
안 산 동 문 회 (500,000)	500,000	약학2	김 선 우	3.00
여 자 동 문 회 (1,000,000)	500,000	제약2	이 지 현	3.76
	500,000	약학4	박 찬 영	3.97
ROTC동문회 (500,000)	500,000	약학4	김 인 철	3.50
약제반동문회 (1,000,000)	1,000,000	제약3	엄 재 윤	3.20
약수회동문회 (1,800,000)	1,800,000	제약3	이 은 철	3.60
나사모동문회 (1,000,000)	1,000,000	약학4	김 성 철	2.68

합 계 : 13,300,000





동문을 배려하는 마음  
그대.... 진정한 승자입니다 !!



김기명 (18회, 본지 편집위원)





# 발전기금 조성 내역(기수별)

총 22억 1천 5백 1십만원 (2006년 5월 3일 현재)

## 교 수 총 16,800 만원

- <교내> 이민원(1,000), 최영욱(1,000), 임철부(1,000)  
 염정록(700), 김창중(500), 김미영(500),  
 이도익(500), 임채욱(500), 김대경(500)  
 황완균(500), 김하형(500), 김홍진(500)  
 심상수(500), 손의동(700), 천영진(500)  
 김종갑(500), 손동헌(500), 이광표(500)  
 홍순각(500), 김기호(500), 허인회(500)  
 황광우(500), 한상범(500), 이재휘(500)  
 최형균(500), 조사연(500)
- <타교> 오유진(300), 한성순(100), 주왕기(300)  
 염윤기(300), 석대은(300), 권광일(300)  
 임세진(300)

## 학 생 총 5,350 만원

## 동문회장단 총 30,500 만원

권혁구(1,000), 임상목(1,000), 유영후(1,000) 조의환(11,000),  
 안병식(1,000), 박종화(1,000), 정재일(500), 이기안(500),  
 박숙자(500) 김연희(500), 이규진(500), 박호일(500) 유정사(500),  
 정덕호(500), 황공용(500) 황문상(500), 강옥희(500), 서국진(500)  
 윤대봉(500), 박석동(500), 정명진(500), 김경오(500), 이규식(500),  
 김현태(500), 김종열(500), 김승재(500), 김종성(400), 김승태(400),  
 정찬현(400), 김수배(300), 이호섭(300), 박계환(300), 이경옥(300),  
 김영식(300), 허근희(300), 박찬희(300), 노덕재(300), 조기현(300),  
 양희익(300), 이내홍(300)

## 단체기부 총 5,950 만원

- 중삼친목회(300) • 미주(L.A.) 3회 동기회(50)
- 91학번 친목회(이용준 외, 300) • 미생실험반 동문회(300)
- 7회 동기회(500) • 7회 약우회(박숙자와 11명)(500)
- 64예중회 회원일동(100) • 약대기금(3,200)
- 기업체후원(700)

## 학부모 및 기타 총 400 만원

- 한충강( '02 한인빈 학부모, 300)
- 송병준(10/9 심포지엄 연사, 100)

## 개인·부부동문 총 162,110 만원

## 기수별 통계 (단위 : 만원)

- <1회> 손동헌(500), 오유진(300), 이광표(500) 홍흥만(300)  
 <2회> 고두흔(박명자 부부, 700), 서화택(500), 홍순각(500),  
 황인규(300), 황재수(100), 한성순(100)  
 <3회> 김석재(300), 김용욱(50,000), 조영만(이정자 부부, 50),  
 한만우(1,000)  
 <4회> 김기호(500), 김현용(300), 박노일(300), 이연수(300),  
 천홍기(300), 허인회(500)  
 <5회> 박명자(고두흔 부부, 700), 이송학(300), 이해석·강태일 부부  
 (1,000)  
 <6회> 김경희(300), 김동열(300), 김종구(300), 박정배(300),  
 신정숙(300), 안병한(300), 유상열(300), 이준장(100),  
 임철부(1,000), 추의호(300), 홍병석(300)  
 <7회> 강승안(500), 김영일(300), 김옥남(500), 김정부(300),  
 김정웅(300), 김정재(300), 박명신(300), 박숙자(500),  
 박옥규(300), 유영후(1,000), 유윤재(300), 이기환(1,150),  
 이기안(노신희 부부, 500), 이능세(300), 이양현(500),  
 이준중(60), 인고길(300), 임종홍(300), 이정자(조영만  
 부부 50), 정재일(500), 차승현(300), 한철희(300)  
 <8회> 김연희(500), 김형이(500), 문옥자(300), 박성애(300),  
 박찬수(300), 배영애(100), 신현우(100), 윤주섭(300),  
 이백천(1,500), 이조열(300), 임상목(1,000), 장영재(300),  
 정재용(300), 주왕기·김희자 부부(300), 조의환(11,000)  
 최병준(200), 한석원(500) 허근희(300), 김홍재(300)  
 <9회> 권혁구(1,000), 김영부(500), 상병준(300), 서황석(500),  
 이규진(500), 이근배(100), 노신희(이기안 부부, 500)  
 <10회> 김삼균(300), 박호일(500), 방순환(12,000) 서정목(300),  
 유정사(500), 이대운(300), 이양원(300), 장영조(300),  
 정송수(300), 정수길(300), 정영기(300), 조규동(300)  
 <11회> 김승업(300), 김정길(100), 김창중(500), 민대식(300),  
 박상희(300), 박찬희(300), 이철규(50), 정덕호(500),  
 최옥출(100), 황공용(500), 황문상(500), 홍금자(남기탁  
 부부, 500)  
 <12회> 강강옥희(500), 김 구(500), 김초성(100), 남기탁(홍금자  
 부부, 500), 노덕재(300), 박영찬(1,000), 민영임(100),  
 우홍길(300), 염윤기(300), 이성우(500), 이정희(300),  
 이호섭(300), 최병호(300), 64예중회 회원일동(100)



- 〈13회〉 김신미(10), 김종성(400), 박동규(300), 문재빈·김애련 부부(500), 서국진(500), 안병식(1,000), 윤창현(300), 조종목(300), 이종각(박종애 부부, 500), 조성복(홍순경 부부, 500)
- 〈14회〉 김명웅(1,000), 김원순(300), 김종열(500), 윤대봉(500), 이규식(500), 정도연(1,000), 정진모(300)
- 〈15회〉 김승태(400), 김용의(300), 박석동(500), 석대은(300), 안민철(300), 이인석(300), 조찬휘(300)
- 〈16회〉 강명채(500), 김광식(300), 김선기(300), 김성광(100), 박종애(이종각 부부, 500), 우상규(300), 윤영로(200), 조기현(300), 한인희(300), 홍순경(조성복 부부, 500), 최광식(전순희 부부, 500)
- 〈17회〉 김인형(500), 선우영환(방금숙 부부, 500), 김대희(400), 신상직(500), 양희익(300), 유종관(300), 장재인(300), 전상훈(300), 정갑진(300), 주완표(300), 최해광(300)
- 〈18회〉 강응모(성낙순 부부, 500), 김기명(300), 김청길(300), 박계환(300), 정명진(500), 조중형(300)
- 〈19회〉 권광일(300), 권영훈(300), 권창호(400), 김경오(500), 김동희(300), 박효식(300), 옥태석(300), 이경옥(300), 이창욱(300), 최종숙(300)
- 〈20회〉 강혜옥(300), 김영섭(300), 김중갑(300), 김현태(500), 박기배(300), 송열호(300), 방금순(선우영환 부부, 500), 서종원(300), 송창수(300), 오상동(300), 유영내(300), 윤춘수(300), 이신규(300), 이극선(300), 이상일(500), 임구래(300), 정영수(300), 임경원(이현숙 부부, 1,000), 정찬현(400), 지태현(300), 차재근(300), 최운환(300)
- 〈21회〉 강성무(300), 김대일(300), 김병무(300), 김수배(300), 박전희(100), 백운경(50), 어경남(300), 이규섭(300), 이세진(500), 전명선·김민숙 부부(300)
- 〈22회〉 강희운(300), 김철수(300), 김홍진(500), 박동우(300), 손의동(700), 오황영(400), 유대식(300), 이상돈(100), 이정석(300), 장용운(300), 전일오(300), 최광훈(300), 정진호·강명희 부부(500)
- 〈23회〉 강호영(100), 공인호(300), 권석형(500), 김수중(300), 김영식(300), 김항만(300), 박종화(1,000), 박희용(100), 양재업(300), 이도익(500), 이승하(300), 이원길(300), 이정대(100), 임상규(300), 임준석(300), 정덕기(300), 정원국(300)
- 〈24회〉 김관식(500), 김상현(300), 오동근(300), 윤규형(500), 김승재(김희식 부부, 500), 윤원철(300), 이광섭(300), 이규삼(100), 이범도(300), 이영주(300), 임무호(500), 정상수(300), 조종래(500), 최영욱(1,000), 함삼균(50), 최재윤(김윤경 부부, 500), 함한성(300), 홍용기(300), 황규진(300)

- 〈25회〉 고성권(300), 김영식(300), 김준규(100), 김희섭(300), 성낙순(강응모 부부, 500), 손현우(300), 위성건(500), 이내홍(300), 이민원(1,000), 이재희(김은진 부부, 500), 이현수(300), 조순현(300), 최두주(300), 조석현(임홍욱 부부, 500)
- 〈26회〉 김안식(300), 김영후(300), 라종우(300), 문형철(300), 박재길·오옥희 부부(500), 백낙기(300), 선우일원(300), 심상수(500), 이영준(300), 이종량(300), 정태형(300), 이창훈(이숙희 부부, 500), 진희역(300), 최민규(300), 황완균(500)
- 〈27회〉 안산 79학번 동기회(김덕진, 오소용, 오홍설, 이상필, 이창오, 이현수, 한봉길, 최면용 각각 300씩 총 2,400), 곽순자(150), 김정호(300)남상진(300), 박수길·이정아 부부(500) 박영달(300), 방만성(조순연 부부, 500), 변영신(300), 안희영(300), 양건모(300)유기조(300), 오영돈(300), 이선애(100)최기선(300), 현기원(300),
- 〈28회〉 김광선(300), 김미경(300), 김영희(300), 김윤경(최재운 부부, 500), 김유근(500), 김희식(김승재 부부, 500), 박용석(100), 박우중(300), 안희규(300) 양덕숙(300), 이병천(300), 이용해(300), 이숙희(이창훈 부부, 500), 이해룡(300), 임세진(300), 임채욱(500), 장원규(300), 전금용(300), 조상오(300), 조효금(300)
- 〈29회〉 강대용(300), 강철선(300), 김영자(300), 김은진(이재희 부부, 500), 서경원(300), 손병로(300), 안성진(300), 유종운(300), 유인석(300), 이종민(300), 이 준(300), 이철(300), 장우성(300), 정진호(300)
- 〈30회〉 김광식·윤기숙 부부(500), 김미영(300), 박복자(300), 서봉호(100), 신일균(300), 이인재(300), 장부재(300), 조덕희(300), 조순연(방만성 부부, 500), 천세영(300), 최병원(300), 황유세(300)
- 〈31회〉 김진홍(300), 김하형(500), 박건규(50), 변동성(300), 이현숙(임경원 부부, 1,000)
- 〈32회〉 고은미(300), 박은미(300), 조양연(300), 채영주(400)
- 〈33회〉 박재훈(240), 임희원(300), 이재휘(500)
- 〈34회〉 민성철(300), 배규환(300), 이선우(300)
- 〈35회〉 곽정근(300), 권준한(300), 황광우(500)
- 〈36회〉 방극상(50), 안영윤(300), 우경아(300), 임성호(300)
- 〈37회〉 오상희(100), 정병욱(300)
- 〈38회〉 박용석(300)
- 〈39회〉 박종호(300)
- 〈40회〉 한국약품(이병두, 300)
- 〈41회〉 구영준(300)
- 〈43회〉 강규태(100), 김중호(100), 신명숙(300)
- 〈44회〉 문상희(100)

조성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pharm.cau.ac.kr](http://www.pharm.cau.ac.kr))나 동문회보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生動하는 계절이다

山마다 녹음이 짙어 사람에게는 시원한 삶의 공간을 준다. 큰 나무는 큰 쉼터를 주고 작은나무는 작은 쉼터를 제공한다. 사람에게도 같은 이치가 적용되는 것은 불문가지로 큰 인물은 사람들에게 平安함을 주지만 소인은 不安을 줄 뿐이다. 뿌리가 깊숙히 넓게 퍼져 있는 나무가 巨木이 되듯이 동문회라는 토양에 든든히 고정된 인물이 큰 인물이 되리라는것은 명약관화하다우리동문회도 이제는 뿌리깊은 나무와 같은 人物들이 배출되어 동문회와 야가사회에 유익을 주는 그런 본산지가 될 것을 기대해 본다

황 공 용 (11회, 부회장/편집위원장)

明

벌써 부터 더위가 기승이다. 올 여름은 유난히 온도가 높고 습할 것이라는데 .. 이런 계절적 특성은 내분비 와 신경계 균형을 깨트려 면역력과 신진 대사 능력을 급격히 떨어트려 피로가 극에 달하게 된다. 무차별적인 세금과 부담금 증가로 국민의 현실적 심리적 저항감이 5.31 지방 선거에 나타났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민심이 잘못된 정책 방향을 시급히 개선해주길 바라는데도..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이 다양한 만큼 조정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진심으로 바라건데.. 더 이상 오기나 편 가르기 식의 정치적 행태가... 우리 동문 예선 일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염원 에서 "아름다운 승자"라는 제목의 만평을 그려 보았다

吾

인생의 후반전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부자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한 가지씩 깨우칠 때마다 인생사는 맛이 난다. 바쁘게 살아온 우리, 이제는 한시름 돌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이 회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으면...

洗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령이 위헌이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시각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마사 자격증을 딸 수 없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 지난 2003년 6월 같은 법령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재가 3년 만에 판단을 뒤엎자 시각장애인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붓물 터지듯이 양극화 시키는 사회 구조가 서로를 원한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심각한 지경에 와 있다. 이에 우리 중앙인들은 권혁구 회장님께서도 분명히 밝히셨듯이 동문의 친목과 화합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50주년을 맞이해야 할 때이다.

〈편집위원장〉 황공용(11회) 〈편집위원〉 김종렬(14회), 김경오(19회), 박희용(23회), 김정수(26), 이준(29회)

동문여러분의 육고를 모집합니다

동문회 및 회원들의 활동과 관계된 것이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내용이나 환영합니다. 가급적 관계되는 사진을 첨부하시면 더욱 알찬 구성이 될것입니다. 동문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을 바랍니다.

〈접수〉 동문회보 편집실

전화: (02)565-1700  
팩스: (02)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





100년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나는 시원하고 부드러운 남자!

**까스활명수같은 남자!**



  
전속모델 김동완

까스 성분으로 시원하게 소화시키고-  
11가지 생약성분으로 부드럽게 소화시키고-  
김동완도 까스활명수도 만능 엔터테이너답죠?

11가지 생약성분-  
**부채표** **까스활명수**<sup>큐</sup>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왜? 숙취해소음료하면 모닝케어일까요?

- ✓ 미배아대두발효추출액(GMT-ALC-5L, **낮또균**)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 ✓ **밀크씨슬**이 들어있습니다
- ✓ **자일리톨**이 들어있어 술냄새 걱정을 덜어줍니다
- ✓ **벌꿀, 허벌에센스** 함유로 **맛이 좋습니다**



**新제품**

술 마신 다음날 아침이 걱정되지요?  
 이제, 술 마시기전에 **모닝케어** 드시고  
 상쾌한 아침을 느껴보세요!



## 밀크씨슬은?

모닝케어에 함유되어 있는 밀크씨슬은  
 엉겅퀴풀의 일종으로 학명은 실리마린입니다

술 마신 후 아침을 상쾌하게

# 모닝케어





# 세상 모든 사람은 질병 앞에선 갓난 아기일 뿐입니다



약을 만들기 전에 생명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수액제 메이커이며, 국내 최초로 항균제 시장의  
신약을 개발한 중외제약은 생명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으로  
생명존중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병없는 건강한 세상, 중외제약이 앞장 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중외제약은 국내 병원용 의약품 시장을 선도합니다
- 중외제약은 글로벌 기준의 신약개발력으로 앞서갑니다
- 중외제약은 세계적인 수액제 메이커로 유명합니다
- 중외제약은 화콜, 웨렴 등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병원·약국전문  
닥터큐 엔디엠  
**Dr.Q**

# NDM



for hair loss

## 한방과 과학이 빛은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



### 01 Dr.Q NDM 스페셜 토닉

한련초, 치자뽕나무 등  
20여가지 생약 및 아로마



### 02 Dr.Q NDM 클리닉 샴푸

석창포, 알로에, 박하 등  
순수 생약 추출물 및  
아로마 함유



### 03 Dr.Q NDM 뉴트리션플러스

건조맥주효모, 선황자  
추출물, 다시카롤,  
난황 레시틴, 피루 함유

남성



사용전



사용3개월



사용6개월

여성



사용전



사용3개월



사용6개월

남성



사용전



사용4개월



사용7개월

남성



사용전



사용3개월



사용6개월

교육일정	교육내용	시간
▶ 일시: 매달 첫째, 둘째, 셋째 화요일 오전 10:00 ~ 오후 1:00	· 모발생리학	180분
▶ 장소: 다모코스메틱 교육실	· 탈모메커니즘	180분
▶ 교육문의: 02) 3676-3377~8 (허근희약사 : 011-748-3047)	· 탈모증분류/진단/치료법	120분
	· 고객상담법	60분

▶ 약사특화교육은 별도로 공지합니다.



# 그때만 생각하면...

예방 중요한 건 백 번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야구해설가 하일성씨.

수많은 경기 예측을 해왔어도 건강만큼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혈관 문제는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없기에, 쓰러진 후에야 예방의 중요성을 실감한 것입니다. 이제 그는, 건강한 혈관을 위한 생활습관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시작하세요! 바이엘 아스피린 프로텍트

바이엘 아스피린 프로텍트는 고혈압, 비만·당뇨와 같은 복합적 심혈관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관상동맥혈전증을 예방합니다



야구해설가 하일성  
하일성



## 건강한 혈관을 위하여 - 바이엘 아스피린 프로텍트

- 저용량 아스피린은 세계보건기구(WHO)에 필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장에서 녹는 정제로서 위장장애를 최소화한 제품입니다
- 100여년 역사를 갖고 있는 바이엘이 만든 제품입니다



아스피린 프로텍트™





**중앙대학교약학대학동문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8번지  
(테헤란오피스빌딩 1309호)

전화 : (02) 565-1700 팩스 : (02) 564-1701

E-mail: capa21@hananet.net

<http://www.caupharm.or.kr>